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삼교읍 일원 확정



충청남도 도청이전 평가단(평가단장 영남대학교 이성근)은 지난 2006년 2월 9일(목)~2006년 2월 12일(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하였다.

시 군추천 16명, 도의회 추천 16명, 14개 학회추천 전문가 38명 중 6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6개 평가대상지를 현장 답사를 한 후,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 지원단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삼교읍 일원이 도청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충청남도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사업구역을 결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세운 뒤 2010년 공사에 착수해 2013년부터 기관과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2월 24일 개최된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와 28일 개최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삼교읍 일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